http://dx.doi.org/10.35704/YJH.55.9

『장자』 우언과 『광인일기』 광인의 형상 고찰

한영걸*

- 목 차 -

Ⅰ. 서론
Ⅱ. 광인의 형상
Ⅲ. 반유가적 입장
Ⅳ. 반항정신
Ⅴ. 광기
Ⅵ. 결론

|국문초록|

장자와 루쉰은 서로 다른 시대 사람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모두 광인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하였다는 연계점이 있다. 지금까지 장자와 루쉰을 연계 지은 연구는 많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장자』의 우언과 루쉰 『광인일기』 광인의 형상을 연관 지어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루쉰의 문학 창작에 끼친 『장자』의 영향을 규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의 광인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장자』의 우언과 루쉰 『광인일기』 광인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광인의 형상 반유가적 입장, 반항정신과 광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주제어 : 『장자』, 우언, 루쉰, 『광인일기』, 광인

Ⅰ. 서론

광인(狂人)은 문학작품에서 자주 묘사하는 형상이다. 중국 문학사에서 광인의 형상은 『장자(莊子)』의 우언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 같다. 『장자』 우언의 '고분이가(鼓盆而歌)'에서 보여준 '장자'의 광기는 후대의 많은 문인들에게 창작 모티브로 영향을 끼쳤다. 20세기에 이르러 루쉰의 『광인일기(狂人日記)』에서 묘사한 광인이 바로 대표적인 광인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를 살펴보면 비슷한 점이 적지 않다. 양자는 모두 광인이라는 인물을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자』의 진인(眞人)도 루쉰의 작품에서 진짜 사람(眞的人)으로 탈바꿈하여 계승된다.

장자와 루쉰은 서로 다른 시대 사람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장타이옌(章太炎)이라는 연결점이 있다. 장타이옌은 『장자』를 매우 숭상하여 유가와 묵가사상보다도 도가사상을 높이 평가하였다. 장타이옌의 『장자』에 대한 태도는 제자인 루쉰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에 대해 루쉰은 "장타이옌 선생의 영향을 받아"[1] "사상적인 면에서 장자와 한비자의 독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2] 스스로 시인한 바가 있다. 실제로 루쉰은 자신의 작품에 『장자』의 어휘를 많이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3], "장자의 반권위적

1) 魯迅 著, 「集外集」, 『魯迅全集 第七卷』, 北京:人民出版社, 2005, 4쪽. "以後又受了章太炎先生的影響。"
2) 魯迅 著, 「寫在≪墳≫後面」, 『魯迅全集 第七卷』, 北京:人民出版社, 2005, 301쪽. "就是思想上, 也何嘗不中些莊周韓非的毒。"
3) 田剛, 「≪莊子≫與魯迅早期文體」, 『魯迅研究月刊』 8, 北京魯迅博物館, 2002, 20쪽. "'曼衍'、'犁然'(『人

의식, 반언술적 표현 등에"도[4] 관심을 보였다. 루쉰이 비록 만년에 "『장자』의 소극적인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5]하였지만, "『장자』의 소담스럽고 기이한 문사에 대한 활용은 그의 조기 논문이 '장자식'의 문풍과 격식을 지니게 하였다."[6]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자』의 우언과 루쉰 소설의 형상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와[7] 문체, 사상적인 면에서 연관 지은 연구가[8] 적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장자』의 우언과 루쉰 소설 중 광인의 형상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자』 우언과 루쉰 소설 중 광인은 중국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형상으로,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본고는 『장자』의 우언과 루쉰의 『광인일기』에서 묘사한 광인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고찰하여 루쉰의 문학 창작에 끼친 『장자』의 영향을 규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之曆史』), '屍府'、'天閼'、'成然'(『科學史教篇』), '掊擊'、'塊然'、'輇才小慧之徒'、'靈府'、'芒然自失'、'吊詭'、'黕暗'、'愚芚'、'拘於虛'、'仁義之途, 是非之端, 樊然淆亂'、'槁枯'、'木居而茅食'、'偏枯'、'緣督'、'傲睨萬物'(『文化偏至論』, '靈府'、'枯槁'、'支離'、'淵默而雷聲'、'攖人心'、'天閼'、'無用之用'、'無何有之鄉'、'澡雪精神'、'彷徨'、'衆生擾擾'、'耆然'(『摩羅詩力說』, '惡聲'、'黕暗'、'槁梧'、'瞿然'、'大覺'、'發如機栝'、'靈府'、'靈台'、'擧世譽之而不加勸, 擧世毁之而不加沮'、'昌狂'、'唱喁'、'厥心純白'、'百昌'、'亂之上也, 治之下也'、'莊語'(『破惡聲論』)。"

4) 정재서, 「食人·狂氣·近代-『광인일기』에 대한 신화적 독법, 兼論『황제를 위하여』」, 『중국현대문학』 3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5, 94쪽.

5) 田剛, 앞의 논문, 18쪽. "努力避免≪莊子≫消極思想的"毒害"。"

6) 田剛, 위의 논문, 20쪽. "對≪莊子≫豐美詭奇文辭的運用, 使得他早期的論文具有了"莊子式"的文風和體格。"

7) 여기에는 이병호의 「루쉰(魯迅)의 전기(前期) 문학사상(文學思想) 연구」, 『中國文學』27, 한국중국어문학회, 1997, 이주노의 「魯迅의 「狂人日記」, 狂人과 狂氣의 형상화」, 『중국현대문학』 4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김언하, 「단재와 루쉰의 자아 이상 비교」 『中國學』 40, 대한중국학회, 2009 등과 정영희의 「『장자(莊子)』의 인격적 이상과 현실」, 『人格教育』12 1, 한국인격교육학회, 2018, 金路傑의 「一個書生的狂人之言-莊子思想的矛盾之思」, 『長江師範學院學報』28 5, 長江師範學院, 2012. 등이 있다.

8) 여기에는 田剛의 『莊子』與魯迅早期文體」, 『魯迅研究月刊』 8, 北京魯迅博物館, 2002, 「『莊子』與魯迅早期思想」, 『魯迅研究月刊』 4, 北京魯迅博物館, 2003, 程平芳의 「淺談莊子精神與阿Q精神的不同」, 『劍南文學 : 經典閱讀』 9, 四川省綿陽市文聯, 2011, 楊妍의 「論魯迅對莊子思想的繼承」, 『湘潭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7. 3, 湘潭師範學院, 2005 등이 있다.

Ⅱ. 광인의 형상

첫째, 『장자』의 우언과 루쉰의 『광인일기』에서 묘사한 광인의 형상은 모두 광인 즉 이단아로 묘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자』의 우언을 살펴보면 '장자'[9],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자사, 자여, 자려, 자래, 서무귀 등 광인의 형상이 매우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인위적인 예의를 멸시하는 등 일반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광인으로 묘사된다. 그럼 그 예를 살펴보자.

> 장자의 아내가 세상을 뜨자 혜자가 문상을 갔다. 장자가 마침 다리를 뻗고 앉아 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혜자가 말했다. "자네 마누라는 자네와 같이 살면서 자식을 키우고 몸이 늙었네. 마누라가 죽은 것을 울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러자 장자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네. 마누라가 죽었을 때 내가 어찌 슬프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시원을 살펴보면 생이란 본래 없었던 것이네. 본래 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형체도 없었던 것이며, 형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운도 없었던 것이네. 흐릿한 가운데 섞여 있다가 그것이 변하여 기운이 생겼고, 기운이 변하여 형체가 생겼으며, 형체가 변하여 생이 생겼고, 그 생이 지금 또 변하여 사로 갔네.

9) 우언에서 등장하는 '장자'는 저자인 장자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저자가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인물형상이다. 본고는 저자와 우언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같으므로 인한 오해를 피면하기 위해 우언 속의 인물을 '장자'라 하고 저자인 장자와 구분하고자 한다. 제자우언을 살펴보면 저자 자신의 형상을 우언에서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 풍류인물들인 공자, 혜시 등 역사인물들도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장자가 「천하편」에서 우언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황당한 말과 끝없는 사설"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언은 결코 역사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 학파의 학설을 유세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고, 우언에 등장하는 장자, 공자 등 역사인물들의 사적도 자연히 꾸며낸 것이다. 비록 『장자』에서 등장하는 본인의 형상이 매우 많지만, 이는 우언에 등장하는 다양한 형상 중의 한 형상에 불과한 것으로 저자인 장자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는 봄, 가을, 겨울, 여름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네. 마누라가 큰 방에 편안히 누워있는데, 내가 소리를 지르며 운다는 것은 천명을 모르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는 것을 그만둔 것이네."[10]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장자'는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인들에게 '장자'가 미친 사람 즉 광인으로 오해받게 한다. 혜자가 "마누라가 죽은 것을 울지 않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분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여기에서 장자가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묘사한 것은 생과 사는 춘하추동의 변천과 같은 것으로 사람은 기에서 생겨 기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생사일체관(生死一體觀)을 역설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한편, 루쉰의 『광인일기』에서도 광인이라는 이단아의 형상을 다룬다. 루쉰은 서문에서 광인을 피해망상증에 걸린 환자라고 소개하고 나서 본문에서 광인의 피해망상증을 단계적으로 묘사하였다.

오늘은 달빛이 전혀 없는데, 나는 이것이 안 좋은 징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침에 조심스럽게 집을 나서자 조궤이 영감의 눈빛이 이상했다.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는 것 같기도 했다. 이외에도 예닐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나에 대해 소곤거리면서도 또 내가 볼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

10) 莊子 著, 張耿光 譯著, 「至樂」, 『莊子全釋』, 貴州 : 貴州人民出版社, 1990, 305쪽. "莊子妻死, 惠子吊之, 莊子則方箕踞鼓盆而歌。惠子曰 : '與人居, 長子老身, 死不哭亦足矣, 又鼓盆而歌, 不亦甚乎!' 莊子曰 : '不然。 是其始死也, 我獨何能無概然!察其始而本無生, 非徒無生也而本無形, 非徒無形也而本無氣。雜乎芒芴之間, 變而有氣, 氣變而有形, 形變而有生, 今又變而之死, 是相與爲春秋冬夏四時行也。 人且偃然寢於巨室, 而我噭噭然隨而哭之, 自以爲不通乎命, 故止也。'"

들이 다 그러했다. 그 중에서 가장 흉악한 놈이 나를 보고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는데, 나는 머리부터 발뒤축까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들이 이미 흉계를 다 짰다는 것을 알았다.[11]

위의 문장에서는 조궤이 영감 등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하여 광인의 피해망상증을 묘사하였다. 광인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해치고자 하는 흉계를 짜고 있다는 망상에 잠긴다. 여기에서 루쉰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광인의 망상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주인공이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

이어서 루쉰은 가족들의 광인에 대한 태도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광인이 피해망상증 환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집으로 끌려 들어오니 집안사람들은 짐짓 나를 모르는 척했다. 그들의 눈길도 다른 사람들의 눈길과 다르지 않았다. 내가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닭이나 오리를 가두듯이 밖에서 자물쇠를 덜컥 채웠다. 왜 이렇게 나를 대하는지 그 영문을 알 수 없었다. …… 오늘 비로소 집안사람들의 눈빛이 밖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과 완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2]

광인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왜 자신을 닭이나 오리를 가두듯이 서재에 가두는지 몰랐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이 밖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과 똑

11) 魯迅 著, 「狂人日記」, 『魯迅全集 第一卷』, 北京:人民出版社社, 2005, 445쪽. "今天全沒月光, 我知道不妙。 早上小心出門, 趙貴翁的眼色便怪 : 似乎怕我, 似乎想害我。 還有七八個人, 交頭接耳的議論我, 又怕我看見。 一路上的人, 都是如此。 其中最凶的一個人, 張著嘴, 對我笑了一笑 ; 我便從頭直冷到脚跟, 曉得他們布置, 都已妥當了。"

12) 魯迅 著, 앞의 책, 447쪽. "拖我回家, 家裏的人都裝作不認識我 ; 他們的眼色, 也全同別人一樣。 進了書房, 便反扣上門, 宛然是關了一只雞鴨 …… 今天才曉得他們的眼光, 全同外面的那夥人一模一樣。"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즉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루쉰은 '식인'이라는 기존 삶의 질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미친 사람으로 치부된 광인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사람을 잡아먹는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예의도덕의 해악을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둘째, 장자와 루쉰은 비록 모두 광인이라는 형상을 묘사하였지만, 광인을 형상화한 목적에서 차이점이 있다.

장자가 생존했던 춘추전국시대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혼란의 시대로, 힘의 원칙만이 관철된 시대이다. 기존의 예의제도가 붕괴되면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며, 신하가 주군을 시해하는 추악한 현상이 일상다반사였다.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통치자들의 추악함과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회제도의 폐단을 직접 체험했던 장자는 인생무상을 느끼게 되었고, 또 사회가 혼란하게 된 원인을 인간의 인위적인 작위에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자는 노자(老子)의 무위자연(無爲自然) 등 도가사상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속세를 초탈하고자 하는 소요유(逍遙遊)와 생과 사를 같은 것으로 보는 생사일체관(生死一體觀) 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같은 시대의 제자백가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것과 다르게 장자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위정자들의 인위적인 작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전형적인 전통이나 형식적인 봉건체제의 사회제도와 예약문물, 도덕규범을 인위적인 조작에서 이루어진 거짓"이라고[13] 비판하였다. 이는 "고유 전통 사상에 대한 일대 혁명이며 반동이었던 것이다."[14]

이처럼 그 시대의 반항아였던 장자는 인위적인 제도와 도덕규범을 반

13) 장자 저, 김달진 편역, 『장자』, 문학동네, 1999, 524쪽.
14) 위의 책.

대하고 도가사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우언에서 광인의 형상을 묘사하였던 것이다.

반면, 루쉰도 광인의 형상을 통하여 인위적인 제도나 도덕규범을 반대하고자 하였지만, 그 주된 창작 목적이 도가사상의 유세가 아니라 중국 국민을 각성시키는 데 있었다.

루쉰이 『광인일기』를 창작하게 된 데는 바로 당시 산서성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일하던 외사촌 동생이 갑자기 '피해망상증'에 걸렸던 실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외사촌 동생을 모델로 창작한 『광인일기』에서 "피해망상증에 걸린 한 환자에게 일어난 이야기에서부터 '사건을 전개시키면서' '구사회의 병의 근원을 폭로하여' '사람들에게 주의를 갖도록 촉구하는 한편' '방법을 강구하여 병을 고치고자 한' 것이 바로 당시 루쉰이 이 소설을 쓰게 된 목적이었다."[15] 여기에서 '구사회의 병의 근원'은 "봉건사회의 가족제도와 예의도덕의 해악"을[16] 가리킨 것이다. 루쉰은 미친 사회의 병폐를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하여 폭로하는 풍자적인 수법으로 중국인을 각성시키고자 하였다.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는 모두 광인의 형상을 묘사하였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점을 찾을 수 있으나, 양자는 창작 목적에서 약간의 차이성을 보여준다.

Ⅲ. 반유가적 입장

첫째, 『장자』 우언의 광인과 『광인일기』의 광인의 형상에서 모두 반유

15) 왕스음 지음, 신영복·유세종 옮김,『魯迅傳·루쉰의 삶과 사상』, 다섯수레, 1992, 104쪽.
16) 위의 책.

가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공통성을 찾아볼 수 있다.

장자는 춘추전국시대에서 가장 먼저 유가를 반대했던 인물이다. 그는 유가사상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인물을 형상화하였다. 그 중에서 광인의 형상은 유가사상을 반대하는 데 자주 활용되었다.

> 얼마 지나지 않아 자상호가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공자가 이 소식을 듣고 자공에게 가서 장례를 도와주도록 하였다. 마침 맹자반과 자금장이 악곡을 엮고 거문고를 타며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말하고 있었다. "상호여! 상호여! 그대는 이미 자연으로 돌아갔건만 우리는 아직도 사람으로 있구려!" 자공이 다가가서 말했다. "외람된 말씀이오나 주검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 보고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어찌 예의의 본뜻을 알겠는가?" 자공이 돌아와서 공자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덕행도 없고 예의도 없이 주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도 안색이 변하지 않으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고 하였다.[17]

장례식에서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유가의 입장에서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그래서 자공이 맹자반과 자금장의 행위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러나 장자에 의해 도가사상의 대변인으로 탈바꿈한 공자는 두 사람의 행위에 대해 오히려 "그들은 조물주와 벗이 되어 천지의 기운 속에서 노닐고 있다. 그들은 삶을 붙어 있는 사마

17) 莊子 著, 張耿光 譯著, 「大宗師」『莊子全釋』, 貴州 : 貴州人民出版社, 1990, 115쪽. "莫然有間, 而子桑戶死, 未葬。 孔子聞之, 使子貢往侍事焉。 或編曲, 或鼓琴, 相和而歌曰 : '嗟來桑戶乎!嗟來桑戶乎!而已反其眞, 而我猶爲人猗!' 子貢趨而進曰 : '敢問臨屍而歌, 禮乎?' 二人相視而笑曰 : '是惡知禮意!' 子貢反, 以告孔子曰 : '彼何人者邪? 修行無有而外其形骸, 臨屍而歌, 顔色不變, 無以命之。 彼何人者邪?'"

귀나 달려 있는 혹과 같이 보고, 죽음을 따버린 부스럼이나 터진 종기와 같이 보고 있다. …… 속세 밖에서 막연하게 방황하며 무위청정에 노니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심란하게 세상의 예의를 닦는 것으로 세인들의 이목에 뜨이려 하겠는가?"라고[18] 대변하면서 맹자반과 자금장이야말로 소요유의 경지에 도달한 진인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서 장자는 맹자반과 자금장이라는 광인의 형상을 통하여 유가의 인위적인 예의를 비판하고 무위자연 사상을 역설하였다.

장자에 비해 루쉰의 유가에 대한 태도는 더욱 과격하였다. 그는 유교 윤리의 비인간성을 "'외부인이 사람을 먹다 → 집안사람이 사람을 먹다 → 전체 사회가 사람을 먹다' …… '현실사회가 사람을 먹다 → 중국역사가 사람을 먹다 → 전체문화 전통이 사람을 먹다'."고[19] 단계적으로 폭로시켰다. 그리고 유가사상의 핵심인 '인의도덕'을 '식인'이라고 풍자하면서 유교 윤리의 위선성과 위해성을 비판했다. 이는 아래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무릇 모든 일은 연구를 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예로부터 늘 식인을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분명치는 않다. 역사서를 조사해봤지만 역사서에는 페이지 마다 연대도 없이 단지 '인의도덕'이라는 몇 글자만 삐뚤삐뚤 적혀 있을 뿐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밤새 역사서를 자세히 보았더니 마침내 글자 사이에 '식인'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책에 이렇게 많은 글자가 적혀 있었고 소작인도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웃으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

18) 莊子 著, 張耿光 譯著, 앞의 책, 116쪽. "彼方且與造物者爲人, 而遊乎天地之一氣。 彼以生爲附贅縣疣, 以死爲決疣潰癰。 …… 芒然彷徨乎塵垢之外, 逍遙乎無爲之業。 彼又惡能憒憒然爲世俗之禮, 以觀衆人之耳目哉!"

19) 조홍선, 「≪儒林外史≫와 <狂人日記> 비교-'봄'과 '보여짐'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硏究』 49, 한국중문학회, 2012, 121쪽. 재인용.

나도 사람이기에 그들은 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20]

광인은 '식인'의 사회에서 미치광이로 소외된 존재이다. 그는 자신이 왜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는지 그 원인을 줄곧 알지 못하였다. 우연히 역사서를 조사하다가 인의도덕이라고 적혀 있는 글자 사이로 '식인'이라는 두 글자를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가 인의도덕의 미명하에 감춰진 '식인'의 사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처럼 루쉰은 미치광이로 취급당하던 광인을 '식인'이라는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진짜 사람'으로 묘사하고, 인의도덕을 강조하던 사회를 '식인'의 사회로 묘사하는 대립적인 구성을 통하여 유교 윤리의 위선과 폐해를 폭로하였다.

둘째, 『장자』와 루쉰은 비록 모두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그 동기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성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에서 여러 학파의 제자들은 자기 학파 사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상호 공격하면서 서로 대립하였다. 이 중에서 유가에 대한 적대적인 언행은 묵가로부터 시작하여 장자의 도가를 거쳐 한비자의 법가에 이르러 일단락 짓는다. 도가 인물 중에서 장자는 유가에 대해 매우 깊은 적대감을 드러낸 인물이다.

장자가 유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 이유는 유가사상과 상충하는 도가사상 때문이다. 장자의 도가사상은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然)을 핵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장자는 사회가 혼란한 원인이 위정자들의 인위적인 작위에 있다고 보고 모든 인위적인 것에 대해 경계하였다. 유가가 군

20) 魯迅 著, 앞의 책, 447쪽. "凡事總須研究, 才會明白。 古來時常吃人, 我也還記得, 可是不甚清楚。 我翻開曆史一查, 這曆史沒有年代, 歪歪斜斜的每葉上都寫著仁義道德'幾個字。 我橫豎睡不著, 仔細看了半夜, 才從字縫裏看出字來, 滿本都寫著兩個字是'吃人'! 書上寫著這許多字, 佃戶說了這許多話, 卻都笑吟吟的睜著怪眼睛看我。 我也是人, 他們想要吃我了!"

주의 도덕적인 자질을 요구하고 고대의 이상적인 정치를 복구하는 것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한 것과 다르게, 장자는 무위자연의 원칙을 따르기만 하면 사회가 안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장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가의 인의도덕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인위적인 틀인 것이 분명한 것이었고 무위자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는 장자가 유가를 비판하고 공격하였던 동기이다.

반면, 루쉰이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은 학술사상의 차이성 때문이 아니라, 유가사상의 중국인에 대한 세뇌 때문이다.

루쉰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사회가 반봉건·반식민지 사회에 처하였던 시대이다. 몇천 년 동안 지속되었던 유가사상은 중국인의 노예적인 근성을 길러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통치자들의 압박과 착취를 당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순종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신해혁명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었다. 이에 루쉰은 "혁명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권력자가 예전에는 인의도덕을 내세워 사람을 먹다가 이제는 혁명을 구실로 먹는다는 것이며, 또 사람을 죽일 때 예전에는 목을 베다가 지금은 총살을 시킨다는 것이고, 민중은 다른 사람이 희생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매함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잔혹한 본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21] 통탄하였다. 그리고 중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유가사상을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병든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루쉰은 『광인일기』를 창작하여 유교 윤리의 위선적인 본질과 비인간성을 폭로함으로써 중국인의 국민성을 바꾸고자 하였다. 실제로 루쉰은 자신의 창작 동기에 대해 "나는 대체로 병든 사회의 불행한 사람들 속에서 제재를 찾았는데, 병든 원인을 드러내어 치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였다."고[22]

21) 김언하, 「루쉰의 문학 세계와 광기 주제」, 『중어중문학』 35, 한국중어중문학회, 2004, 504쪽.

언급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장자』우언과『광인일기』의 광인은 모두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자의 창작 동기에 있어서 장자가 무위자연 사상과 상충하는 유가사상 때문에 유가와 대립적인 관계를 가졌고, 중국인의 정신적 자유를 속박하였기 때문에 루쉰이 유가사상을 반대했다는 차이성도 확인할 수 있다.

Ⅳ. 반항정신

첫째,『장자』우언과『광인일기』의 광인은 모두 그 시대의 반항아라는 공통성이 있다.

춘추전국시대 위정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많이 봤던 장자는 속세의 인위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요유의 경지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멸시하였고 정치를 멀리하였다. 이는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제자들의 입세(入世) 사상과는 상반되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위정자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속세를 초탈하고자 함은 바로 장자 나름의 반항정신인 것이다. 이는 아래의 문장에서 엿볼 수 있다.

> 장자가 낚시를 하고 있었다. 초왕이 두 명의 신하를 보내 뜻을 전하여 말하기를 "나라의 일을 맡아주시오."고 하였다.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말하였다. "나는 초나라에 있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죽은 지 삼천 년이 되었다고 들었네. (초나라에서) 그것을 비단에 싸고 상

22) 魯迅 著,「吶喊」,『魯迅全集 第一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2005, 439쪽. "我的取材, 多采自病態社會的不幸的人們中, 意思是在揭出病苦, 引起療救的注意。"

자에 넣어서 묘당 위에 숨겨두었다 하네. 이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죽어서 뼈를 남겨 귀중하게 되기를 바랐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아서 진흙탕에서 꼬리를 치기를 바랐겠는가?" 두 명의 대부가 "살아남아서 진흙탕에서 꼬리를 끌기를 바랐을 것입니다."고 말하자 장자는 "돌아가시오. 나는 장차 진흙탕에서 꼬리를 치며 살겠네."고 말하였다.[23]

이 문장은 장자의 권력을 멸시하고 위정자들에게 아부하지 않는 반항정신을 반영하였다. 초왕이 나라의 일을 맡기려 하자 '장자'가 거북이를 빗대어 "돌아가시오. 나는 장차 진흙탕에서 꼬리를 치며 살겠네."고 말한 말에서 장자의 권력에 대한 멸시와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장자가 속세를 초탈하고자 한 것은 결코 "사회적 약자나 방관자의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이탈과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현실과 억압을 겨냥해서 개체의 삶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긍정하는 장자 나름의"[24] 반항정신이었던 것이다.

장자가 반항하고자 했던 대상이 위정자들이었다면 『광인일기』 중 광인이 반항하고자 했던 대상은 '식인'의 사회 즉 유교윤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이다. 광인의 '식인' 사회에 대한 반항은 주로 '식인'을 거부하고 '식인'의 본질을 바꾸고자 한 데서 나타난다.

광인은 자신이 사는 사회가 '식인'의 사회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식인'이라는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식인'을 거부하였다. 이는 아래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3) 莊子 著, 張耿光 譯著, 「秋水」, 『莊子全釋』, 貴州 : 貴州人民出版社, 1990, 298쪽. "莊子釣於濮水。 楚王使大夫二人往先焉, 曰 : '願以境內累矣!' 莊子持竿不顧, 曰 : '吾聞楚有神龜, 死已三千歲矣。 王巾笥而藏之廟堂之上。 此龜者, 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二大夫曰 : '寧生而曳尾塗中。' 莊子曰 : '往矣! 吾將曳尾於塗中。'"

24) 정종모,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정치적 자유」, 『철학논집』 16,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2008, 149쪽.

천라오우가 밥과 함께 채소 한 접시와 생선찜 한 접시를 들고 들어왔다. 그 생선의 눈알은 허옇고 딱딱했으며 입이 떡 벌어져 있었는데, 식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았다. 몇 젓가락 먹어보니 매끈매끈한 게 생선인지 사람고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먹은 것을 모두 토해 버렸다.25)

이어서 광인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을 저주한다면 먼저 형부터 저주할 것이며,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을 깨우친다면 먼저 형부터 깨우쳐 줄 것이다.26)

여기에서 '식인'의 관습에 대해 반항하고자 한 광인의 반항정신을 살필 수 있다.

둘째, 『장자』 우언과 『광인일기』의 광인은 반항정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먼저 장자의 반항정신을 살펴보면 비록 소극적인 면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시종일관하게 반항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약육강식의 전국시대에 살았던 장자는 시대적 혼란의 원인이 위정자들의 인위적인 작위 혹은 종법예의 제도와 분봉제 같은 인위적인 제도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장자는 정치에 무위자연의 원칙을 적용하면 그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25) 魯迅 著, 앞의 책, 447쪽. "陳老五送進飯來, 一碗菜, 一碗蒸魚 ; 這魚的眼睛, 白而且硬, 張著嘴, 同那一夥想吃人的人一樣。 吃了幾筷, 滑溜溜的不知是魚是人, 便把他兜肚連腸的吐出。"

26) 魯迅 著, 앞의 책, 450쪽. "我詛咒吃人的人, 先從他起頭 ; 要勸轉吃人的人, 也先從他下手。"

그러나 야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에서 장자의 무위자연 주장은 실효성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장자는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평생 소요유의 경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탐욕스럽고 추악한 위정자들에 대해 반항하고자 하였다. 이는 비록 전제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의식을 명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장자가 "사회의 모든 예속과 제도 등을 전혀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현실, 인간의 생존까지도 초월하려는 초세간·초현실주의에로 치닫게 되었던 것 …… 이는 그 시대적 반항이며 역류"였다고[27] 볼 수 있다.

한편, 『장자』의 광인과 다르게 『광인일기』 광인의 반항은 용두사미의 반항이라는 특징이 있다.

'식인'의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광인의 항쟁은 처음부터 그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것이다. 또한 루쉰의 창작 목적이 광인이라는 형상을 통하여 중국인을 각성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에 광인은 결국 '식인'의 사회에 무릎을 꿇게 된다. 이는 아래의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그는 병이 난 사람이 동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멀리서 찾아와 줘서 고맙지만 자기 동생이 이미 병이 나아서 어느 지방의 수습관리로 갔다고 했다.[28]

이처럼 '식인'이라는 미친 사회에서 유일하게 진짜사람(眞的人)이었던 광인의 항쟁은 실패하게 되고, 그는 미친 사회가 요구하는 정상 사람으로 돌아가 벼슬길에 나가게 된다. 김언하는 이에 대해 "결국 인간은 봉건적인 중국 민족과 근대적인 서양 민족을 막론하고 사람을 먹지 않는, …… 참된

27) 장자 지, 김달진 편역, 앞의 책, 524쪽.
28) 魯迅 著, 앞의 책, 445쪽. "言病者其弟也。 勞君遠道來視, 然已早愈, 赴某地候補矣。"

인간이 되기 어렵다는 깊고 완전한 자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자각에 이르게 됨으로써 루쉰은 한편으로 봉건주의에 대한 철저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죽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견지할 수 있었고, 한편으로 서양민족의 상대적 우위는 인정하면서도 근대문명에 대한 순진한 이상화에는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고[29] 평가하였다.

『장자』 우언의 광인과 『광인일기』의 광인은 모두 기존 질서에 반항하고자 하는 반항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장자』 우언의 광인이 끝까지 권력자들에게 반항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과 달리, 『광인일기』 광인의 반항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V. 광기

첫째, 『장자』 우언의 광인과 『광인일기』의 광인은 모두 광기를 표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기란 원래 미친 증세나 기미를 말하는 것이지만, 자유분방하고 세속의 예법을 멸시한다는 뜻도 있다. 『장자』 우언에서 광인이 보여준 광기가 바로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로 광인의 권력을 멸시하는 광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 서무귀가 여상의 소개로 위 무후를 만났다. 무후가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선생님은 지치셨네요. 산속의 생활이 고되어 과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고 하였다. 서무귀가 말하기를 "저는 임금님을 위로하러 왔습

29) 김언하, 「단재와 루쉰의 자아 이상 비교」, 『中國學』 40, 대한중국학회, 2009, 360~361쪽.

니다. 임금님이야말로 어찌 저를 위로할 일이 있겠습니까? 임금께서 욕망을 만족시키고 애증의 감정을 기르신다면 성명의 본바탕을 해칠 것입니다. 임금께서 욕망을 버리고 애증의 감정을 억누르신다면, 귀와 눈이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저야말로 임금님을 위로해 드리려 합니다. 임금님께서 어찌 저를 위로할 일이 있겠습니까?"고 하였다. 그러자 무후가 언짢은 듯 대답하지 않았다.[30]

장자가 살았던 시대는 인명을 초개처럼 여겼던 전국시대로, 조금이라도 군주의 심기를 건드리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무귀는 아주 당당하게 "저는 임금님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임금님이야말로 어찌 저를 위로할 일이 있겠습니까?"고 위무후를 훈계한다. 본래는 위무후가 서무귀를 위로하려고 한 것인데, 서무귀가 오히려 위무후를 위로하러 왔다면서 몹시 방자하고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여기에서 서무귀가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여준 것은 이러한 기이한 행동으로 위무후의 관심을 끌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지만, 이 말에는 서무귀의 권력을 멸시하는 광기도 스며들어 있다.

한편, 『광인일기』에서 광인이 보여준 광기는 '식인'이라는 피해망상증의 심화와 더불어 점층적으로 표출된다. 이 과정을 광기의 초기 증상, 광기의 진행성 증상, 광기의 만성적 증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광기의 초기 증상을 보기로 한다.

앞에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

30) 莊子 著, 張耿光 譯著, 「徐無鬼」, 『莊子全釋』, 貴州 : 貴州人民出版社, 1990, 350쪽. "徐無鬼因女商見魏武侯, 武侯勞之曰 : '先生病矣, 苦於山林之勞, 故乃肯見於寡人。' 徐無鬼曰 : '我則勞於君, 君有何勞於我! 君將盈耆欲, 長好惡, 則性命之情病矣 ; 君將黜耆欲, 牽好惡, 則耳目病矣。 我將勞君, 君有何勞於我!' 武侯超然不對。"

빛이 조궤이 영감과 똑같았고 얼굴빛도 시퍼렇다. 내가 '나와 무슨 원수를 졌다고 재들도 저럴까?'고 생각하니 그만 참지 못하여 "너희들 어서 나한테 말하지 못해!"고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아이들이 도망치고 말았다. …… 그런데 아이들은 어찌된 일인가? 그 당시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오늘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을까?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정말 무서웠다. 또 궁금하면서도 마음이 아팠다. …… 집으로 끌려오니 집안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척했으나, 그들의 눈길은 다른 사람들의 눈길과 똑같았다. 서재에 들어가자마자 닭이나 오리를 가두듯이 밖에서 자물쇠를 덜컥 채웠다. ……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줄 안다면 나를 잡아먹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31]

위의 문장에서 광인의 광기가 서서히 표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주변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피해망상증이다. 여기에서 나타난 광인의 광기는 "무의미하고 터무니없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 의미심장하고 이해 가능한 현상"이라는[32]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광기의 진행성 증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서를 조사해봤지만 역사서에는 페이지 마다 연대도 없이 단지 '인의도덕'이라는 몇 글자만 삐뚤삐뚤 적혀 있을 뿐이었다. 잠이 오지 않아

31) 魯迅 著, 앞의 책, 445~447쪽. "前面一夥小孩子, 也在那裏議論我 ; 眼色也同趙貴翁一樣, 臉色也都鐵青。 我想我同小孩子有什麽仇, 他也這樣。 忍不住大聲說, '你告訴我!' 他們可就跑了。 …… 那時候, 他們還沒有出世, 何以今天也睜著怪眼睛, 似乎怕我, 似乎想害我。 這眞教我怕, 教我納罕而且傷心。 …… 拖我回家, 家裏的人都裝作不認識我 ; 他們的眼色, 也全同別人一樣。 進了書房, 便反扣上門, 宛然是關了一只雞鴨。 …… 他們會吃人, 就未必不會吃我。"

32) 김언하, 앞의 논문, 488~489쪽.

서 밤새 역사서를 자세히 보았더니 마침내 글자 사이에 '식인'이라는 두 글자가 가득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책에 이렇게 많은 글자가 적혀 있었고 소작인도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웃으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도 사람이기에 그들은 나를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33]

이 단계에서 광인은 역사서에 기록된 '인의도덕'이라는 글자 사이로 '식인'이라는 글자를 발견한다. 이에 광인의 광기는 주변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자고 한다는 초기 증상으로부터 사회 전체가 '식인'의 사회라는 진행성 증상으로 발전한다. 이 단계는 광인이 "30년 동안의 미몽(迷夢)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과정"으로[34], 이 단계에 발현된 광기는 "세상의 은폐된 부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35]

이어서 광기의 만성적 증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형님께서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자들의 무리에 섞일 것까지야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 무슨 짓을 못 하겠습니까? 그 자들이 나를 잡아먹는다면 형님도 피면치 못할 것이고, 지들끼리라도 서로 잡아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나서 즉각 고친다면 사람마다 편히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록 옛날부터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부터 착해질 수 있으니, 그들에게 안 된다고 말하세요![36]

---

33) 魯迅 著, 앞의 책, 447쪽. "我翻開曆史一查, 這曆史沒有年代, 歪歪斜斜的每葉上都寫著'仁義道德'幾個字。 我橫豎睡不著, 仔細看了半夜, 才從字縫裏看出字來, 滿本都寫著兩個字是'吃人'!書上寫著這許多字, 佃戶說了這許多話, 卻都笑吟吟的睜著怪眼睛看我。 我也是人, 他們想要吃我了!"

34) 장경석, 「루쉰(魯迅)의 현실인식과 문학의 상징성」, 『동양예술』 28, 한국동양예술학회, 2015, 268쪽.

35) 장경석, 앞의 논문, 269쪽.

36) 魯迅 著, 앞의 책, 452쪽. "他們要吃我, 你一個人, 原也無法可想 ; 然而又何必去入夥。 吃人的人, 什麼

위의 문장에서 광인의 광기가 사회 전체가 '식인'의 사회라고 생각하는 진행성 증상으로부터 한 단계 더 향상된 '식인'의 사회에 대해 반항하고자 하는 만성적 증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광기의 진행성 증상이 '식인'의 역사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광기의 만성적 증상은 '식인'의 사회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이다. 루쉰은 "이런 광기와 광인을 통해 비록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결함을 지닌 문명과 가혹한 운명에 대한 뿌리 깊은 반항심과 반항아를 발견해냈고, 나아가 이는 민중 속에서 잠재된 혁명의 동력과 왜곡된 외관의 모순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는 길을 깊이 고민하게 만든 계기로도 작용했다."[37]

둘째, 『장자』 우언에서 묘사한 광인의 광기와 『광인일기』에서 묘사한 광인의 광기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장자는 약육강식의 전국시대에 살면서 그 시대의 참상을 직접 체험하였지만, 무위자연 사상으로 혼란을 종식하고자 했던 뜻을 펼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사회 혼란의 근원인 위정자들에 대한 불만과 현실상황에 대한 울분으로부터 생과 사에 대해 초탈하게 되었고, 모든 인위적인 작위를 반대하게 되었으며, 권력과 세속의 예법을 멸시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는 당시의 정통적인 관념에 어긋난 이단사상이었다. 따라서 장자의 자유분방한 삶을 살고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광기는 일반인들에게는 미친 사람의 광기로 보였던 것이다.

반면, 『광인일기』에서 루쉰이 묘사한 광인의 광기는 『장자』에서 보여준 광인의 광기와 다르게 피해망상증이라는 미친 증상으로 표출된다. 물론 광인에게 있어서 광기의 원동력이 '식인'이라는 혐오감에서 나온 것이지만,

---

事做不出 ; 他們會吃我, 也會吃你, 一夥裏面, 也會自吃。 但只要轉一步, 只要立刻改了, 也就人人太平。 雖然從來如此, 我們今天也可以格外要好, 說是不能!"

37) 김언하, 앞의 논문, 489쪽.

루쉰의 창작목적이 광인이라는 미친 사람의 형상을 통하여 “가족제도와 예교의 폐단을 폭로하기 위한”[38] 데 있었기 때문에 『광인일기』에서 표출된 광인의 광기는 병적인 측면이 강하다.

결론적으로 『장자』와 『광인일기』의 광인은 모두 광기를 표출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장자』 우언에서 광인의 광기가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탈한 경지를 반영하였다면, 『광인일기』에서 보여준 광인의 광기는 유교윤리의 폐해를 폭로하기 위해 피해망상증이라는 병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Ⅵ. 결론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고는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에 등장하는 광인의 형상을 크게 광인의 형상, 반유가적인 입장, 반항정신, 광기로 나누어 유사성과 차이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는 모두 광인의 형상을 묘사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자』 우언의 광인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인위적인 예의를 멸시하는 등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광인일기』의 광인은 ‘식인’의 사회에서 ‘식인’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한편, 장자와 루쉰이 처한 시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양자가 광인을 형상화한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장자가 인위적인 제도와 도덕규범을 반대하고 도가사상을 역설하기 위해 광인의 형상을 묘사

38) 魯迅 著, 「≪中國新文學大系≫ 小說二集序」 『且介亭雜文二集』, 北京:人民出版社, 2006, 189~190쪽. “狂人日記意在暴露家族制度和禮教的弊害。”

하였다면, 루쉰은 반봉건·반식민지사회에서 통치자들과 제국주의의 이중적인 착취를 받으면서도 단순히 순종만 하는 중국인을 각성시키기 위해 광인의 형상을 묘사하였다.

둘째, 『장자』 우언과 『광인일기』의 광인이 모두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장자와 루쉰이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한 동기에서 차이성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장자가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가 유가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학술사상 때문이라면, 루쉰이 반유가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는 중국인들에 대한 유가사상의 세뇌 때문이다.

셋째, 『장자』 우언과 『광인일기』의 광인이 모두 그 시대의 반항아로써 반항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장자』 우언의 광인이 비록 적극적으로 반항의 의지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평생 권력과 멀리하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방식으로 반항의 의지를 나타냈다면, 『광인일기』 광인의 반항이 루쉰의 창작동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냈다는 점에서 차이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장자』 우언과 『광인일기』의 광인이 모두 광기를 표출하였다는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장자』의 우언에서 보여준 광인의 광기가 세속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초탈한 삶의 태도라면, 『광인일기』에서 보인 광인의 광기는 피해망상증이라는 병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차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는 광인이라는 공통적인 형상에 입각한 반유가적인 입장, 반항정신, 광기라는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양자는 시대적인 차이와 창작동기, 목적의 차이로 서로 상이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자』의 우언과 루쉰 소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고 있

지 않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장자』의 우언과 『광인일기』 광인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고찰하는 데 그쳤다. 비록 이번 고찰에서 『장자』의 우언과 루쉰 소설의 연관성을 조명하지는 못했지만, 양자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에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차후의 연구에서 이번 연구를 토대로 『장자』의 우언과 루쉰 소설의 연관성을 깊이 있게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자료

魯迅 著,『魯迅全集』, 北京:人民出版社, 2005.

魯迅 著,『且介亭雜文二集』, 北京:人民出版社, 2006.

莊子 著, 張耿光 譯著,『莊子全釋』, 貴州 : 貴州人民出版社, 1990.

루쉰 지음, 한병곤, 김하림, 유세종,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루쉰 전집』, 그린비, 2011.

장자 저, 김달진 편역,『장자』, 문학동네, 1999.

장자 지음, 기세춘 옮김,『묵점 기세춘 선생과 함께하는 장자』, 바이북스, 2007.

2. 논저

김언하,「루쉰의 문학 세계와 광기 주제」,『중어중문학』35, 한국중어중문학회, 2004.

김언하,「단재와 루쉰의 자아 이상 비교」,『中國學』40, 대한중국학회, 2009.

이병호,「루쉰(魯迅)의 전기(前期) 문학사상(文學思想) 연구」,『中國文學』27, 한국중국어문학회, 1997.

이주노,「魯迅의「狂人日記」, 狂人과 狂氣의 형상화」,『중국현대문학』43,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7

장경석,「루쉰(魯迅)의 현실인식과 문학의 상징성」,『동양예술』28, 한국동양예술학회, 2015.

정영희,「『장자(莊子)』의 인격적 이상과 현실」,『人格敎育』12(1), 한국인격교육학회, 2018.

정재서,「食人·狂氣·近代-『광인일기』에 대한 신화적 독법, 兼論『황제를 위하여』」,『중국현대문학』35,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5.

정종모, 「장자의 소요유(逍遙遊)와 정치적 자유」, 『철학논집』 16, 서강대학교철학연구소, 2008.

조홍선, 「≪儒林外史≫와 <狂人日記> 비교-'봄'과 '보여짐'을 중심으로」, 『中國文學硏究』 49, 한국중문학회, 2012.

金路傑, 「一個書生的狂人之言-莊子思想的矛盾之思」, 『長江師範學院學報』28 5, 長江師範學院, 2012.

田剛, 「≪莊子≫與魯迅早期文體」, 『魯迅硏究月刊』 8, 北京魯迅博物館, 2002.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the image of madman between『Zhuangzi's』fable and『madman's diary』

Han, Yong-Jie

Although Zhuangzi and Luxun are people of different ages,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he two in that they both embodied a mad man figure in their respective works.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linking Zhuangzi and Luxun up until now, and rarely any study has been done comparing the mad man figures of Zhuangzi's 'Fable' and Luxun's 'A Madman's Diary'. This article compares the mad men appearing in both Zhuangzi's 'Fable' and Luxun's 'A Madman's Diary' with the aim of paving an way for identifying the influence of Zhuangzi on Luxun's literary creation.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the mad man in Zhuangzi 'Fable' and the one in Luxun 'A Madman's Diary' was compared in terms of madman figure and semi-ethical po and sitionspirit of rebellion and madness.

Key words: Zhuangzi, 'Fable', Luxun, 'A Madman's Diary', mad man

한영걸
국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06702)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40 401호
전자우편: kaneijie@daum.net

이 논문은 2019년 9월 15일 투고되어 2019년 10월 17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10월 24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